

## 패러프레이즈 능력과 통역 전문성의 연관성

정혜연  
(한국외대)

### 1. 연구 목적과 필요성

글이나 말의 일부를 다른 표현으로 바꾸는 행위, 즉, 패러프레이즈는 오랫동안 통역, 번역에서 중요한 전략이자 연습방법으로 사용되어 왔다(유지 2003, 류현주 2007, 이인규 2012). 특히 번역보다는 통역에서 패러프레이즈를 활발하게 활용해왔는데, 그 이유는 글의 의미뿐 아니라 형태의 유지도 중요시하는 번역, 특히 법률번역과 같은 전문번역에서는 형태 변형을 전제로 하는 패러프레이즈를 연습방법으로 사용할 경우, 원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통역은 순발력과 메시지 전달을 중시하기 때문에 하나의 메시지를 여러 형태로 포장할 수 있는 패러프레이즈 연습이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여러 통역교육 연구에서 패러프레이즈 관련 연구가 다각적으로 이루어졌다. 통역 혹은 문장구역의 연습방식으로서의 패러프레이즈의 효용성을 살펴보기도 하고(칼리나 Kalina 1998, 홍설영 Hong 2010), 패러프레이즈 능력과 통역 잠재력, 혹은 통역능력을 비교한 연구가 발표되기도 하였다(루소 Russo

2014 등). 패러프레이즈를 통역 행위의 일부로 보고 패러프레이즈에 사용되는 노력과 동시통역의 어려움을 비교 분석한 연구도 있었다(크리스토폴스 & 드 그룻 Christoffels & De Groot 2004). 그러나 이들 연구가 타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패러프레이즈와 통역과의 관계가 이론적으로 규명되어야 하고, 경험적으로 검증되어야 한다. 그래야 통역연습 방법으로서의 패러프레이즈의 가치도 보다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패러프레이즈 능력과 통역 능력의 관계를 이론적으로 고찰하고 경험적으로 검증하는 것, 이것이 본 연구의 목표이다. 이를 위해 첫째, 패러프레이즈의 성격을 규명하고, 패러프레이즈의 하위 전략을 분류한다. 이 때 기존 심리언어학, 전산언어학, 외국어교육, 통번역학 분야의 패러프레이즈 연구를 참조하여 본 연구 목적에 합당한 분류체계를 세운다. 둘째, 정혜연(2014)를 바탕으로 패러프레이즈가 통역과 어떠한 관계를 갖는지를 이론적으로 정밀 고찰한다. 마지막으로 통역경험이 서로 다른 세 집단을 대상으로 패러프레이즈 실험을 실시해 전문통역사의 패러프레이즈 특징을 추출함으로써 통역과 패러프레이즈 간의 관계를 경험적으로 검증해 본다.

## 2. 패러프레이즈

### 2.1 정의

패러프레이즈는 보통 한 언어 내에서 한 표현을 다른 표현으로 바꾸는 것을 말한다. 관련 연구(글레이트맨 & 글레이트맨 Gleitman & Gleitman 1970, 베킷 & 하비 Bhagat & Hovy 2013, 크리스토폴스 & 그 드룻 2004, 루소 & 피파 Russo & Pippa 2004)나 사전에 나타난 패러프레이즈 정의를 보면 패러프레이즈 정의와 관련하여 공통적으로 두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하나의 표현을 다른 표현으로 바꾼다는 것, 둘째, 원 의미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이 그것이다. 세부적 정의로 들어가 살펴보면 패러프레이즈는 글의 일부를 바꾸면서도 (네이버 사전) 그 의미는 유지하는 행위이다. 의미 보존은 심층구조를 유지함으로써 가능한데 (글레이트맨 & 글레이트맨 1970), 표층구조에서 이

러한 의미를 어휘 대체, 문법구조의 변화(크리스토폴스 & 드 그룻 2004) 혹은 어구 대체(네이버 사전)를 통해 다른 표현으로 바꿀 수 있다. 이러한 패러프레이즈의 용도는 글을 알기 쉽게 풀이한 것(네이버 사전)이다. 그러나 실제 패러프레이즈 사례를 보면 위의 두 가지 공통적 특징을 제외한 세부적인 설명은 실제 예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먼저 패러프레이즈는 글(문어)과 말(구어) 모두에서 일어날 수 있다. 둘째, 패러프레이즈에서 대체는 어휘뿐 아니라, 어구, 어절 단위까지 모든 언어단위에서 일어난다. 셋째, 그 활용도도 외국어 교육, 언어간접 극복, 통역 잠재력 측정, 자동 번역, 텍스트 요약 등 매우 다양하다(홍설영 2010, 박에스터 외 2011, 루소 2014, 엘 사예드 El-Sayed 2014).

본고는 이 모든 것을 고려해서 패러프레이즈를 다음과 같이 정의해 보고자 한다. 패러프레이즈는 글, 말에서 원 의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서 글, 말의 일부를 다른 표현으로 바꾸는 행위이다. 이러한 정의를 바탕으로 다음 장에서는 이 정의에 맞는 패러프레이즈를 형태변화와 효과 별로 분류해 보겠다.

## 2.2 분류

의미를 되도록 보존하면서 하나의 표현을 다른 표현으로 바꾸는 패러프레이즈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한 단어를 동의어로 대체할 수도 있고, 문장 구조를 변경할 수도 있으며, 보는 관점이나 행위자를 달리하여 표현할 수도 있다.

이렇게 패러프레이즈의 방법이 다양한 만큼, 그 방법의 분류도 다각적으로 이루어졌다. 관련 선행연구에서는 패러프레이즈를 연구하기 위해 패러프레이즈에서 나타나는 하위 전략을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 분류했다. 이러한 분류로는 첫째 형태의 변화에 따른 구분이 있다. 먼저 글레이트맨 & 글레이트맨(1970)은 변형생성문법에 기초해 패러프레이즈를 연구하면서 패러프레이즈에서 나타나는 문법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패러프레이즈를 품사별로 분류했다(예: 명사구→동사구). 전산언어학 연구인 버갯 & 하비(2013)에서는 패러프레이즈에서 관찰할 수 있는 모든 형태적 변화를 총 25개의 카테고리로 분류하고 있는데, 동의어 대체, 반복, 삭제, 동사-명사 전환(conversion), 양태의 변화(change of modality) 등이 그 예이다. 통역 관련 패러프레이즈 연구인 루소 & 피파(2004)의 경우, 형

태 변화를, 팽창, 축소, 변화(transformation), 치환(permutation)으로 크게 나누고 그 단위를 어휘, 어구, 어절, 문장으로 세분화한 바 있다.

둘째, 패러프레이즈를 분류하는 데에 패러프레이즈로 나타나는 효과를 기준으로 삼기도 하였다. 루소 & 피파(2004)는 위의 형태 변화로 나타나는 효과를 의미차원과 화용차원으로 분류하여, 의미차원에서는 응집성(coherence) 손실<sup>1)</sup>, 화용차원에서는 화용적 손실, 화용적 이익, 주제-초점의 변화를 예로 들었다.

본고 역시 전문가의 패러프레이즈 양태를 알기 위해 하위전략을 분류해야 하는데, 위에서 소개한 선행연구를 그대로 따르기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다. 글레이트맨 & 글레이트맨(1970)의 분류기준은 일관되고 명확하지만, 명사구 풀어 쓰기만을 연구 대상으로 삼아, 패러프레이즈 전체를 관찰하는 본 연구에서 사용하기에는 그 범위가 협소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버갯 & 하비(2013)의 경우, (전산언어학 분야 패러프레이즈 연구에서 자주 관찰할 수 있듯이) 패러프레이즈의 다양한 양상을 빠짐없이 잘 모아놓기는 했으나 뚜렷한 분류기준을 제시하지 못했다. 많은 예들을 일관된 기준에 따라 분류하지 못하고 25개나 되는 카테고리로 늘어놓은 양상이다.

루소 & 피파(2004)의 분류기준은 패러프레이즈에서 나타나는 형태변화 뿐 아니라 그 결과로 드러나는 효과를 분류기준으로 삼았다는 점은 높이 살만하나, 형태변화와 효과, 이 두 기준을 구분없이 뒤섞어 놓아 분류기준에 일관성이 부족하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먼저 대형 코퍼스 연구(자오 외 Zhao et.al. 2008, 시모하타 외 Shimohata et.al. 2004, 돌렌 외 Dolan et.al. 2004)에서 제시한 패러프레이즈의 예시와 버갯 & 하비(2013)의 예를 참조하여 되도록 많은 패러프레이즈의 양태를 살펴본 후, 루소 & 피파(2004)의 두 가지 기준을 모두 택하여 이를 구분한다. 단, 두 기준, 형태변화와 효과를 분리하여 관찰한다.

1) 텍스트 차원의 문제인 응집성 손실을 의미차원에 국한시키는 것도 문제가 있다.

〈표 1〉 패러프레이즈의 형태변화와 효과 (정혜연 2014 참조)<sup>2)</sup>

- (1) 형태변화
- 표층적 변화 - 대체, 재배치, 첨가, 삭제, 분리, 연결
  - 심층적 변화 (컨셉트 기반 변화) - 요약, 풀기, 컨셉트 대체
- (2) 효과
- 정보변화, 관점변화, 응집성(coherence) 변화, 언어역(register)의 변화

위 분류체계는 루소 & 피파(2004)에서 뒤섞여 있던 형태변화 카테고리과 효과 카테고리를 서로 분리하고, 이 중 의미-화용 이렇게 둘로 나뉘어 있던 효과 카테고리를 담화론적 차원으로 통일하여 다시 세분화(응집성 변화, 언어역 변화 등)한 것이다. 버갯 & 하비(2013)의 25개 카테고리도 위 분류체계에 모두 포함된다. 또 루소 & 피파(2004)에 없던 <심층적 변화> 카테고리를 추가했는데, 이는 변화의 단위를 표층적으로 구분할 수 없는 패러프레이즈 종류, 즉, ‘컨셉트(concept) 혹은 통번역학 용어로 ‘메시지 에 바탕을 둔 변화를 말한다. 쉽게 말해 어떤 단어나 문장 구조를 바꾸는 대신, 내용을 바탕으로 표현을 자유롭게 재구성한 패러프레이즈를 말한다. 따라서 심층적 변화는 <컨셉트 기반 변화>라는 이름으로 부를 수 있겠다.

위 분류는 아래 실험에서 통역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패러프레이즈 차이를 구분할 때 사용하기 위함이다. 위 분류방식은 카테고리의 수가 적고, 형태를 기준으로 한만큼 관찰이 비교적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 패러프레이즈의 형태와 효과를 분리하여 분류기준의 일관성도 높이고자 하였다.

### 3. 패러프레이즈와 통역

패러프레이즈와 통역은 한 눈에도 유사하다. 표현을 달리하면서도 의미를 유지하는 패러프레이즈의 성격이 통역의 성격과 비슷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패러프레이즈를 언어내 번역intra-lingual translation이라고 부르면서 통번역

2) 패러프레이즈의 형태변화와 효과는 통역교육에서 표현을 연습할 때 연습방식의 카테고리으로도 활용해볼 수 있겠다.

의 한 종류로 간주하기도 한다 (버갯& 하비 2013). 그러나 패러프레이즈는 두 가지 이유로 통번역의 한 종류가 될 수 없다. 첫째, 패러프레이즈는 한 언어 안에서 이루어진다. 통번역은 두 언어 간에 이루어지는 행위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언어 내 번역이라는 패러프레이즈의 정의는 그 자체에 모순이 있다. 둘째, 패러프레이즈는 표현 변화를 전제로 한다. 반면, 통번역에서는 단어 하나 하나를 그대로 다른 언어로 옮기는 축어적 형태도 많다. 이렇듯 패러프레이즈가 원문의 표현을 그대로 써서는 안 된다는 제약을 두기 때문에 동의어 인출이나 문법 변경 등의 추가 부담이 있고, 따라서 패러프레이즈가 통역보다 더 많은 인지적 노력을 요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Christoffels & De Groot 2004).

이러한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패러프레이즈는 통역의 연습방법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는데, 이는 패러프레이즈와 통역 간에는 공통점이 더 많기 때문이고, 또 패러프레이즈가 통역보다 더 많은 노력을 요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이는 마라톤 선수가 타이어를 다리에 묶고 달리기 연습을 하는 것과 비교해볼 수 있겠다.

심리학적 관점에서 바라본 통역과 패러프레이즈의 원리상의 공통점은 정혜연(2014)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패러프레이즈에는 동의어/유의어가 많이 사용되고, 동의어/유의어 인출능력은 전문 통역사의 특징 중 하나라는 연구 결과가 있다. 나메이(Namei 2004)는 한 어휘에 대한 습득 수준이 높을수록 그 어휘와 동의어, 반의어를 포함한 계열(paradigmatic)어와의 연결성이 강해짐을 실험을 통해 증명하였는데, 이렇게 볼 때 언어 수준이 높은 통역사의 경우, 계열어 중 하나인 동의어의 연결성이 특수하게 강할 가능성이 있다. 또 거버 외(Gerver et.al. 1989)는 입학시험에서 동의어 시험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 통역학교 졸업 시험 합격률이 높음을 관찰하고 동의어 능력과 통역 능력 간에 관련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정혜연(2015)은 자유 어휘연상 실험을 통해 어휘 연상에 제한을 두지 않았을 때, 통역대학원 학생이 일반 대학생에 비해 더 많은 유의표현을 인출한다는 결과를 얻기도 하였다. 둘째, 패러프레이즈를 잘 한다고 함은 하나의 컨셉트를 다양한 표현으로 포장하는 능력이 있음을 말하는데, 이는 통역의 핵심원리인 비언어적 ‘메시지 형성 능력과 직접적 연관이 있다. 르펠트(Levelt 1989)에 따르면 메시지란 발화지도, 명제(proposition), 의미역(thematic structure)과 서술관점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하나의 메시지는 다양한 의미역과 서술관점으로 이루어진 여러 개의 포맷을 갖는다. 하나의 메시지가 다양한 포맷을 갖는

다 함은 그 안에 내포된 명제가 한 언어 표현에 메시지 않아 그만큼 비언어적 임을 보여준다 할 수 있다. 이는 달리 말해 하나의 메시지에 남들보다 많은 포맷을 가지고 있어 메시지 자체가 뚜렷한 특정 언어의 형태를 갖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패러프레이즈와 통역은 하위 행위를 공유한다. 패러프레이즈 코스에서 관찰된 9개의 하위전략(표 1)이 실제 통역 텍스트에서도 발견된다.

이상에서 보았듯이 통역과 패러프레이즈는 한 언어 내에서 이루어지거나 아니냐의 차이는 갖지만 그보다 많은 원리상의 유사성을 갖는다. 따라서 패러프레이즈의 하위전략을 관찰하는 것은 통역사의 전문성을 알아볼 수 있는 단서가 될 수 있다. 아래에서는 실험을 통해 전문 통역사의 패러프레이즈 특징을 관찰함으로써 패러프레이즈와 통역 전문성과의 연관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통역 연습 및 통역 잠재력 검증 도구로서의 패러프레이즈가 어느 정도의 정당성을 갖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 4. 실험

본 실험의 목적은 (통역능력 검증 도구로서의 패러프레이즈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통역의 전문성과 패러프레이즈의 연관성을 규명하는 것이다. 쉽게 말해 통역 학습과 경험이 많은 전문가일수록 패러프레이즈를 ‘더 잘 한다’는 가설을 증명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패러프레이즈를 잘 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 기준을 정의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본 실험에서는 잘 한다 못 한다는 판단을 떠나 관찰을 통한 차이 발견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즉, 통역 전문가와 다른 집단의 패러프레이즈를 관찰하여 그 차이를 분석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로 한다.

### 4.1 실험설계 및 진행

본 실험은 통역학습 기간과 경험이 다른 세 집단을 대상으로 한 횡단연구로, 이들 집단에서 패러프레이즈의 양상이 어떻게 다른지를 관찰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피험자는 전문통역사 12인, 통역대학원 1학년생 28명, 학부생 16명(총 56인)으로 남녀 비율은 남자24인, 여자 32인 (전문가 집단 남:여=1:11, 통대생 집단 남:여=5:23, 학부생 집단 남:여=9:7)이었다. 연령분포를 보면 전문가는 30, 40대가, 나머지 두 집단에는 20대가 주를 이루었고 (전문가 30대:40대:50대=4:6:2, 통대생 20대:30대=23:5, 학부생: 20대=16), 집단별 평균 연령도 전문가 41.42세, 통대생 26.75세, 학부생 21.94세로 전문가가 뚜렷이 높았다.

피험자는 실험에 앞서 연령, 성별, 통역학습기간과 통역경험을 묻는 설문을 작성했다. 그 후, 패러프레이즈의 예시(표 2)를 보여주고 설명을 한 후, 직접 패러프레이즈를 연습해보도록 하였다(표 2). 패러프레이즈를 설명할 때, 피험자가 보다 자유롭게 다양한 전략을 사용할 수 있도록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예를 몇 개에 국한하여 보여주었다.

〈표 2〉 패러프레이즈의 예시와 연습

[예시]
1. 어렵게 말한다 - 한자어로 바꾸기 예) 프로젝트 팀은 지금 일을 끝내면 다음에 무엇을 할지 정할 생각이다 → 프로젝트팀은 지금 사업을 종료하면, 향후 계획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2. 쉽게 말한다 - 한글로 바꾸기 예) 오늘 주가 폭락은 지난 주말 미국과 유럽 주가 하락의 영향을 받았다 → 오늘 주가가 크게 떨어진 것은 지난 주말 미국과 유럽에서 주가가 떨어졌기 때문이다.
3. 관점을 바꾼다 예) 나는 한 아주머니에게 사과 하나를 1000원에 샀다. → 아주머니는 내게 사과를 하나에 1000원에 팔았다.
4. 풀어 말한다 예) 외국기업이 한국에 들어와 장사하는데 까다로운 조건을 내세우는 것은 텃세로 비칠 수 있다. → 외국회사가 국내에서 사업하는데 어려운 조건을 제시하는 것은 ‘여긴 우리 시장이니 너흰 나가 라는 식으로 보일 수 있다.
[연습]
○ 생산인구가 크게 줄어들어 외국으로부터 더 많은 이민자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되었다. → 생산인구가 큰 폭으로 감소해 외국 이민자 유입 증가가 불가피하다.

3) 모든 피험자는 실험 참여에 동의하였고, 실험 참가 사례를 받았다.

본 실험에 들어가는는 피험자에게 컴퓨터 화면을 통해 문장을 하나씩 제시하고, 그 문장을 보면서 구두로 패러프레이즈를 하도록 하였다. 한 문장 패러프레이즈가 끝나면 다음 문장이 제시되었다.

패러프레이즈에 사용된 예시문은 총 10문장으로, 길이, 어휘 수준, 문장구조, 주제 면에서 다양하게 선정되었다. 이들 문장은 실제 신문의 발췌문을 그대로 사용하되 1-3번 문장만 피험자에게 다양한 패러프레이즈를 유도하기 위해 한자어를 한글어로 대체하였다. 또 문장구조 상으로는 여러 가지 명제를 포함한 복합문을 예시문으로 선정해 패러프레이즈에서 다양한 하위 전략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복합문 중에서도 대등문이 아니라 내포문, 특히 안은 문장을 많이 포함한 문장을 일부로 사용하였는데(예: 아래 8번, 9번) 이는 개인별로 이해도의 차이가 생겨 집단 차이를 관찰하는데 유리할 것으로 기대하였기 때문이다.

〈표 3〉 패러프레이즈 실험 원문

1. 나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일찍 풀려나오기 어려울 것 같다.
2. 빛을 많이 지은 나라는 어쩔 수 없이 남의 나라에서 돈을 빌려올 수밖에 없다.
3. 북한 때문에 오랫동안 하지 못했던 6자 회담이 다시 시작되었다.
4. 대학등록금 문제를 놓고 여야는 조속히 처리하자는 총론에는 공감하면서도 각론에서는 이견을 보이고 있다.
5. 재벌의 경우, 지금까지 국회 출석 요구에 불응하더라도 사실상 묵인했던 게 관행이었다.
6. 여름에는 1천명이 넘는 환자가 발생했지만, 나머지 기간에는 환자 수가 큰 폭으로 감소했다.
7. 오래 선행을 계속 하면서도 자신의 신분 노출을 꺼려왔다.
8. 올해의 인물이란 미국의 시사주간지 ‘타임’이 선정해 발표하는 그 해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 인물이다.
9. 대형마트에 의무휴업일을 지정한 정부의 처분이 위법이라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10. 비행기에서 일등석은 일반석과 몇 발자국 떨어져 있지 않지만 서비스 내용이나 가격은 하늘과 땅 차이이다.

## 4.2 실험결과

### 4.2.1. 관찰 및 측정 방식

먼저 녹음된 실험 결과 전체(오류와 수정도 포함)를 전사(transcript)하였다. 그리고 각 집단의 패러프레이즈를 비교하면서 <표 1>에서 소개한 형태변화와 효과가 각각 얼마나 관찰되는지를 살펴보았다.

측정은 원문을 기준으로 변화한 언어단위의 개수를 세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계산 단위는 기본적으로 띄어쓰기에 따라 나뉘는 ‘어절 이었고, 문법요소의 대체 등 특수한 경우에 한해 조사 등을 별도로 계산한 ‘어휘 를 측정 단위로 하였다. 예를 들어 원문에서 하나의 어휘(예: 의무휴업일)가 여러 개의 어휘로 이루어진 절(예: 의무적으로 쉬어야 하는 날)로 대체된 경우, 이를 한 개의 전략으로 계산하였다. 한편, 재배치나 분리처럼 문장 전체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성격상 주어+서술어로 이루어진 ‘절 을 그 측정 단위로 하였다.

- 대체 - 내용어 대체(동의어 대체, 반의어 대체, 상위어 대체(일반화), 하위어 대체(구체화)), 기능어 대체(문법 요소 대체), 풀어쓰기(어휘→구, 절) 대체 등  
예) 오랜 선행을 계속하면서도 → 오랫동안 좋은 일을 계속하면서도 (대체 2회)
- 재배치 - 어구나 절 순서가 바뀐 경우, 주어 변경 등으로 관점이 바뀐 경우  
예) 대형마트에 의무휴업일을 지정한 정부의 처분이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 법원은 [...] 법에 위배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배치 1회)
- 첨가 - 내용어(구, 절) 첨가 혹은 기능어 첨가의 경우  
예) [...] 국회 출석 요구에 불응하더라도 사실상 묵인했던 게 관행이었다. → [...] 국회에 출석해달라고 했을 경우, 이에 응하지 않더라도 이를 묵과하고 넘어갔던 것이 흔한...(수정됨) / 관행이었다. (첨가 2회)
- 삭제 - 내용어(구, 절) 삭제, 기능어 삭제  
예) [...] 서비스 내용이나 가격은 하늘과 땅 차이다. → [...] 서비스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삭제 2회)
- 분리 - 하나의 구나 절이 별도의 문장으로 분리된 경우, 혹은 내포문이 대등문으로 변경된 경우  
예) 나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일찍 풀려나기 어려울 것 같다.  
→ 그 사람은 단기간에 출소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안 좋은

일을 많이 했기 때문이다 (분리 1회)

- 컨셉트 기반 변화 - 변경된 언어 단위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  
 예) 올해의 인물이란 미국의 시사주간지 ‘타임’이 선정해 발표하는 그 해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 인물이다. → [...] 그 해에 가장 중요한 인물을 선정하는 섹션이다 (컨셉트 기반 변화 1회)

또 이러한 형태변화로 인해 나타난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다음 항목<sup>4)</sup>을 추가로 관찰하였다.

- 정보변화 - 정보가 변한 어절 비율을 측정<sup>5)</sup>. 정보의 단순 변화와 오류로 나뉜다.
- 문법/표현 오류 - 문법/표현 오류, 어색한 표현이 사용된 어절 비율을 측정
- 어투변화<sup>6)</sup> - ‘-다’체가 ‘-습니다’/‘-아/어’체로 변경된 문장 비율을 측정
- 수정 - 수정이 이루어진 어절 비율을 측정
- 반복 - 같은 의미 어절이 반복된 경우의 비율을 측정
- 속도 - 휴지기를 빼고 패러프레이즈가 이루어진 시간만을 측정(1/100초 단위)

#### 4.2.2. 실험결과 및 분석

실험 결과, 전문가만의 특징은 표면적으로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았다.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특징은 형태변화의 양적인 차이에서보다는 형태변화 카테고리 가 가지고 있는 성격, 나아가 그로 인해 나타난 효과의 차이에서 더 명확하게 드러났다. 다시 말해 양적으로 볼 때 전문가와 비전문가 집단의 차이는 미미했으나, 그 차이가 발견된 카테고리는 통역에 의미 있는 카테고리였고, 그 차이로 인한 효과 역시 전문가 통역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것이었다.

4) 이 항목은 효과 자체를 보여주지 않는다. 그 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관찰지표이다. 예를 들어, <반복> 항목을 관찰함으로써 응집성 변화라는 효과를 알아볼 수 있다.  
 5) <정보변화>와 <문법/표현 오류> 항목의 경우, 해당 사항이 있는 어절/어휘의 개수를 세어 전체 어절 수에 대한 백분율로 환산하였다.  
 6) <어투변화>, <반복> 항목은 원래 계획하지 않은 관찰 대상이었으나, 결과를 분석하다 보니 자주 발견되었고, 또 결과분석에 의미가 있었기에 추가하였다.

## (1) 형태변화에서의 집단차

각 집단에서 패러프레이즈로 인한 형태변화 양상은 다음과 같았다. 다른 집단에 비해 전문가 집단에 두드러진 형태변화는 <재배치>, <분리>, <컨셉트 변화>였다.

〈표 4〉 패러프레이즈 형태변화가 나타난 어절 수

	대체	재배치	첨가	삭제	분리	컨셉트
	M(SD)	M(SD)	M(SD)	M(SD)	M(SD)	M(SD)
전문가	30.42(6.26)	<b>1.75(1.71)</b>	4.92(4.03)	2.83(2.95)	<b>0.67(1.07)</b>	<b>0.42(0.51)</b>
통대생	<b>32.71(7.32)</b>	0.82(0.90)	<b>5.54(4.46)</b>	1.71(2.39)	0.36(0.99)	0.11(0.31)
학부생	31.09(8.22)	0.73(1.27)	2.27(2.90)	<b>3.54(5.30)</b>	0.09(0.30)	0(0.00)

이 중 <재배치>와 <분리>는 절 이상의 큰 범위에 걸친 변화이고, <컨셉트 변화>의 경우, 변화의 범위는 크지 않을 수 있지만 원문 표현의 표층구조를 완전히 해체해야 하는 변화이다. 이는 전문가가 다른 두 집단에 비해 문장을 전체적으로 크게 바꾸는 경향이 있다는 의미이다. 이는 전문가가 그만큼 원문의 표층 구조에 얽매이지 않고 심층 구조(컨셉트)를 기반으로 과감하게 문장을 바꾸었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만큼 정보 변화의 위험, 나아가 정보 오류의 위험을 무릅쓴 것이라고 할 수 있다(〈표 6〉).

## [재배치, 분리, 컨셉트 변화의 예]

- 재배치 - [...] 국회 출석 요구에 불응하더라도 사실상 묵인했던 게 관행이었다→관행적으로 [...] 국회 출석 요구에 불응하더라도 묵인되었었다.
- 분리 - 나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일찍 풀려나오기 어려울 것 같다 →그 사람은 단기간에 출소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안 좋은 일을 많이 했기 때문이다.
- 컨셉트 변화 - [...] 환자 수가 큰 폭으로 감소했다→[...] 더 적은 사람이 이 병을 겪었다. / [...] 선행을 계속 하면서도 자신의 신분 노출을 꺼려왔다→[...] 익명으로 선행을 했다.

한편, <첨가>에서는 통대생>전문가>학부생의 결과를 얻었다. 여기서 전문가-통대생의 차이는 그다지 크지 않고, 학부생 집단만이 동떨어져 있음을 볼 수 있는데(<표 4>), 실제 <첨가>의 예를 살펴보면, 이 결과의 의미를 보다 잘 유추할 수 있다. 첨가에는 크게 세 가지 패턴을 관찰할 수 있었다. 첫째, ‘이’, ‘그’, ‘이것이’, ‘거기에 대한 등과 같은 지시사가 첨가된 경우, 둘째, 문장 분리 후 연결을 위해 사용하는 ‘왜냐하면’, ‘그러나 와 같은 접속사가 첨가된 경우, 셋째, 해석에 의한 정보가 첨가된 경우가 그것이다. 이 중 첫 번째, 두 번째는 피험자가 응집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한 언어적 장치라고 볼 수 있다. 세 번째의 예는 자신의 배경지식을 활용한 해석에 의한 것으로, 이 역시 청자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언어적 장치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패러프레이즈에서 <첨가>를 많이 사용했다는 것은 의식적이든 아니든 그만큼 청자를 염두에 둔 것이라고도 볼 수 있겠다.

[첨가의 예]

- 지시사 - 지금까지는 재벌들에게 국회에 출석해달라고 했을 경우, 이에 응하지 않더라도 이를 묵과하고 넘어갔던 [...]
- 접속사 - 그리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서비스 내용이나 [...]
- 해석 - ‘대학등록금을 올리느냐 낮추느냐 (전문가) / ‘국회에서 청문회를 열기 위해 나오라는 요구 (통대생) / ‘북한의 비협조적인 태도 때문에 (학부생)

<삭제>의 경우, 학부생>전문가>통대생의 결과를 보였다. 그 예를 살펴보면 여러 피험자가 공통적으로 생략한 어절(은 부사어와 같이 정보 가치가 비교적 낮은 문장 요소들이었다. 하지만 부수적이거나 정보 가치를 가지고 있는 문장 요소도 자주 생략되는 양상을 보였는데, 이는 이들 요소들이 동급으로 제시된 정보(아래 예에서 내용 vs 가격, 선정 vs 발표, 정부 vs 법원)에 비해 그 중요성이 떨어지다 보니 둘 중 정보 가치가 떨어지는 하나를 주의 깊게 보지 않고 생략해 버린 것이라 할 수 있다.

7) 텍스트언어학에서 보면 <생략(ellipsis)>도 중요한 응집성 도구의 하나이지만, 본 실험에서는 응집성 도구로서의 <삭제>는 관찰되지 않았다.

## [자주 관찰된 삭제의 예]

- 낮은 가치의 정보 - 재벌의 경우, 지금까지 국회 출석 요구에 불응하더라도 사실상 묵인했던 게 관행이었다.
- 중간 가치의 정보 - 비행기에서 일등석과 일반석은 몇 발자국 떨어져 있지 않지만 서비스 내용이나 가격은 하늘과 땅 차이다.  
올해의 인물이란 미국의 시사주간지 타임이 선정해 발표하는 [...] 인물이다.  
대형마트에 의무휴업일을 지정한 정부의 처분이 위법이라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통대생 집단의 삭제율이 가장 낮다는 것은 통대생이 부수적인 정보까지 세심하게 보존했다는 의미로 보아도 좋을 것 같다. 이에 비해 전반적 내용 이해에 더 큰 비중을 두고 큰 변화를 시도했던 전문가 집단은 통대생 보다 많은 정보를 빠뜨렸으나 핵심 정보는 놓치지 않았다. 이는 학부생도 마찬가지였다.

의외의 결과를 보여준 또 다른 항목은 <대체>이다. 앞서 패러프레이즈와 통역의 공통점을 설명하며 언급했던 통역사의 ‘동의어/유의어 강세가 사실이라면, 하나의 표현을 비슷한 의미의 표현으로 대체하는 <대체> 항목에서 전문가의 점수가 높아야 한다. 하지만 결과는 통대생>학부생>전문가로 전문가가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했다. 그리고 전문가만의 특징은 <대체>의 세부 구분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웠다.

## [대체의 예]

- 내용어 (어휘-어휘) 대체
  - (1) 동의어 - [...] 그 사람은 일찍 (풀려나오기→석방되기) 어려울 것 같다.
  - (2) 반의어 - [...] 그 사람은 아주 오랫동안 복역할 것 같다.
  - (3) 상위어(일반화) - 재벌의 경우→부자들은 / 시사주간지→잡지
  - (4) 하위어(구체화) - 재벌의 경우→대기업 총수들은
- 내용어 (어휘-구절) 대체 - 지금까지 (국회출석→국회에 출석하라는) 요청을 받고도 [...]
- 기능어 대체 - 계속 하면서도→계속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 나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좋지 않은 일을 많이 해서 / 남의 나라에서→타국가로부터

<대체> 항목에서 세 집단의 집단차가 크지 않다는 점 또한 <대체>가 어느 한 집단만의 특징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표 5〉 패러프레이즈 형태변화의 집단차<sup>8)</sup>

대체		재배치		첨가		삭제		분리	
F	p	F	p	F	p	F	p	F	p
.488	.617	2.175	.135	2.547	.089	.954	.403	1.376	.271

\* p&lt;.05 \*\* p&lt;.01 \*\*\* p&lt;.001

이상에서 본 패러프레이즈 5개 하위항목의 집단 차이는 <표 5>에서 볼 수 있듯이 유의미하지 않다. 그나마 <첨가> 항목의 집단 차이가 유의미 수준에 가까운 편이다. 이는 전문 통역사의 전문성이 최소한 패러프레이즈의 형태변화에서는 의미가 있을 정도로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석해도 좋을 것이다.

## (2) 효과에서의 집단차

이상에서 살펴본 전문가 패러프레이즈의 형태적 특징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보다 잘 분석하기 위해 이제 그 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정보 변화>, <어투변화>, <문법/표현 오류>, <반복>, <수정>, <속도>의 항목을 별도로 관찰하였다. 이 항목에서도 앞서 발견되었던 특징을 뒷받침 해주는 결과를 얻었다. 즉, 전문가의 패러프레이즈는 크게 두 가지 특징을 갖는데, 하나는 과감한 형태변화이고 다른 하나는 (칭자를 염두에 둔) 응집성 강화라는 것이다.

특히 과감한 형태변화는 주로 정보변화, 화자의 관점변화를 동반했다(표 1). 전문가 집단은 <정보 단순변화>에서는 가장 높은 비율을, <정보오류>에서도 두 번째 높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재배치>, <분리>, <컨셉트 변화>에서 언급했듯이 전문가는 전반적으로 큰 범위의 변화를 시도하였고, 그 결과, 전반적 정보변화, 나아가 정보오류까지 낳게 되었다. 특히 <재배치>를 통해 관점 변화를 시도하는 비율이 높았다 (예: 9번 문장에서 ‘정부 와 ‘법원 을 주어로 사용). 하지만 이렇게 과감한 변화 시도에도 불구하고 언어사용 경험이 많은 전문가는 다른 두 집단에 비해 (차이는 미미하지만) 문법, 표현 오류가 낮았다. 특히 표현의 경우, 오류가 생기거나 더 좋은 표현이 생각나면 바로 고치는 모습을 보였다

8) 컨셉트 기반 항목의 경우, 분산이 0인 집단이 하나 이상이었기 때문에 에 평균 동질성 검정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표 6>의 수정). 전반적으로 정보 보존뿐 아니라 문법, 표현에 조심스럽고, 수정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인 것은 통대생이었다.

〈표 6〉 기타 관찰 항목에서 아래 효과지표가 발견된 어절 수

단위(%)	정보 단순변화	정보오류	문법/표현오류	어투변화	수정
전문가	<b>1.43</b>	5.83	1.09	<b>9.17</b>	<b>2.66</b>
통대생	0.60	4.64	1.37	4.64	1.81
학부생	1.12	<b>8.18</b>	<b>2.10</b>	0	<b>2.66</b>

통역 전문가의 또 다른 특징인 응집성 강화를 보여주는 항목은 <어투변화>와 <반복> 항목이었다. 먼저 <어투변화>의 경우 ‘-다 체의 원문이 ‘-습니다, ‘-아/-어 체로 변화한 문장의 비율인데, 학부생에서는 전혀 나타나지 않은 이러한 어투변화가 통대생 집단에서는 전체 문장의 4.64%, 전문가 집단에서는 9.17%의 비율로 발견되었다 (표 6). 즉, 이 두 집단의 몇몇 피험자는 마치 상대방에게 말을 걸듯이 패러프레이즈한 것이다.

전문가 패러프레이즈의 응집성이 높은 데에는 <반복> 역시 기여를 했다. 일부 전문가에게서 앞의 정보를 뒤에서 다시 한 번 강조하듯이 덧붙이는 경향이 발견되었는데, 그 결과, <반복> 항목에서는 전문가>통대생>학부생의 결과가 나왔다. 통대생과 학부생 집단에서도 이러한 경향을 나타내는 피험자가 있었으나 그 비율이 전문가 집단보다 낮았다 (단, 집단차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전문가 반복의 예]

- 재벌의 경우, 지금까지 국회에 나오라는 요구에는 응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실상 다른 제재를 처하지 않았던 것이 지금까지의 관행이었다.
- 올해의 인물은 타임지가 선정하는 것인데, 미국의 시사주간지인 타임은 그 해에 가장 많은 영향력을 미친 사람을 선정합니다.
- 비행기에는 일등성과 일반석이 서로 분리되어 있다. 그러나 분리된 공간의 크기는 크지 않지만, [...]

반복은 때에 따라 표현 오류로 이어지기도 하고, 언어 효율성을 떨어뜨리기도 하지만, 응집성 제고를 위해 이러한 위험을 감수한 사례를 전문가 집단에서

많이 관찰할 수 있었다.

〈표 7〉 〈반복〉 항목의 평균, 표준편차, 집단차

단위 %	M (SD)	F	p
전문가	<b>1.00</b> (1.76)	.554	.584
통대생	0.71 (0.90)		
학부생	0.45 ( <b>0.69</b> )		

\* p<.05 \*\* p<.01 \*\*\* p<.001

유일하게 집단차가 유의미했던 항목은 <속도>였다. 각 집단에서 전체 속도가 빠른 상위 7명을 골라, 휴지기를 빼고 패러프레이즈 시간만을 측정 한 결과,<sup>9)</sup> 기대했던대로 전문가>통대생>학부생이라는 결과를 얻었다.

〈표 8〉 〈속도〉 항목의 평균, 표준편차, 집단차

단위 %	M (SD)	F	p
전문가	<b>107.14</b> (10.63)	6.359	.013*
통대생	140.03 ( <b>24.58</b> )		
학부생	126.55 (13.62)		

\* p<.05 \*\* p<.01 \*\*\* p<.001

전문가 집단은 전반적으로 원문이 제시되면 바로 패러프레이즈를 시작했고, 말속도 자체도 빠른 성향을 보였다. 이 과정에서 원문을 충분히 이해하지 않고 해석에 의한 패러프레이즈가 이루어짐으로써 정보가 변화되고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즉, 순발력을 위해 정보의 정확성을 희생한 셈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두 학생 집단은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두 집단 모두 원문 이해하고 표현을 고르는데 시간을 사용해 패러프레이즈를 늦게 시작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패러프레이즈에서도 의미 옮기기에 충실하고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이

9) 본 연구의 실험은 각 집단의 피험자 수가 서로 다르고 개인차가 크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결과를 객관적으로 수치화하기 비교적 좋은 속도 부분에서만은 최소한 피험자 수와 개인의 차이를 배제해 보다 정확한 결과를 얻고자 하였다. 세 집단에서 집단 간 분산이 비교적 균일했던 표본크기가 7명이었고, 따라서 세 집단의 상위 7명만을 골라 이들의 속도 차이를 비교하였다.

는 실험언어가 모국어인 한국어인 것을 감안할 때 이해의 어려움이라기 보다는 보다 올바른 표현을 선택하기 위한 고민 때문이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 5. 요약 및 토론

패러프레이즈는 자신이 언어를 이해해야 가능하고 상대방의 언어 이해를 촉진시킨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외국어 학습 등에서 화자의 ‘언어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도구로 활용된다. 따라서 패러프레이즈는 언어를 기반으로 하는 통역분야에서도 통역연습용, 나아가 통역능력 측정 방식으로도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패러프레이즈 활용도의 타당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통역의 전문성이 패러프레이즈에서 어떠한 형태로 드러나는지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학부생-통대생-전문가, 이렇게 통역학습과 경험이 다른 세 집단을 대상으로 패러프레이즈 실험을 한 결과(횡단 연구), 전문가는 <재배치>, <분리>, <컨셉트 변화>, <속도>, <반복>, <정보 단순변화>, <어투변화>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첨가>, <삭제>, <정보오류>에서는 두 번째로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이는 전문가가 다른 집단에 비해 순발력이 뛰어나고, 형태변화에 과감하며, 청자를 염두에 두고, 응집성을 강화하는 데에 강점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순발력 유지와 과감한 형태 변화로 인해 원래의 정보를 변화시키고, 오류를 범하는 허점도 가지고 있음을 관찰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전문가의 특징(집단차)은 <속도> 항목을 제외하고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는데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첫째는 신경학, 심리학적 관점에서 통역능력은 그 바탕이 되는 언어능력에 비해 그 전문성이 뚜렷한 능력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 둘째, 본 실험 패러프레이즈의 자료가 ‘문장 이기 때문일 수도 있다. 통역분야의 기존 연구에서 통역사는 같은 언어대상 실험이라도 단순 어휘보다는 의미이해가 중요한 텍스트 실험에서 강점을 보여 왔다. 어휘에서는 오히려 연령대가 낮은 학생들에게 밀리는 모습을 보였다. 본 실험은 어휘와 텍스트의 중간 단계인 문장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만큼 통역사의 전문성이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이를 종합해 보면, 패러프레이즈를 통해 통역 전문가의 특징을 관찰할 수 있

었으나, 그 차이가 양적으로 뚜렷하지는 않았다. 최종적으로 본고는 패러프레이즈가 통역능력 측정도구(예를 들어 입학시험)로 어느 정도 타당성을 갖지만, 그 결과만으로 통역능력을 판단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자 한다.

### 참고문헌

- 박에스더 & 이형규 & 김민정 & 이해창 (2011) 「이중언어기반 패러프레이즈 추출을 위한 피봇 차별화 방법」, 『인지과학』 22(1): 57-78.
- 류현주 (2007) 「개조식 문체 번역에 대한 고찰」, 『번역학 연구』 8(2): 55-73.
- 유지, 호사카 (2003) 「일본 대중소설에 대한 직역과 의역 및 개작에 관한 소고」, 『번역학 연구』 4(1): 97-116.
- 이인규 (2012) 「아동문학번역에 나타난 번역의 자율성 - 크리스마스 캐럴의 경우」, 『번역학 연구』 13(2): 185-208.
- 정혜연 (2014) 「표현바꾸기(paraphrase)와 통역의 유사성」, 『통번역학 연구』 19(3): 227-245.
- 정혜연 (2015) 「통역과 동의어 혹은 유의표현 - 통역능력에 대한 심리언어학적 경험연구」, 『독일문학』 제135집: 121-143.
- 홍설영 (2010) Paraphrasing as an Anti-interference Technique in Sight Translation: An Action Research-based Experiment.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Studies* 13(2): 141-170.
- Bhagat, Rahul & Hovy, Eduard (2013) What is Paraphrase? *Computational Linguistics* 39(3): 463-472.
- Christoffels, Ingrid & de Groot Annette (2004) Components of simultaneous interpreting: Comparing interpreting with shadowing and paraphrasing. *Bilingualism: Language and Cognition* 7(3): 227-240.
- Dolan, Bill & Quirk, Chris & Brockett Chris (2004) Unsupervised Construction of Large Paraphrase Corpora: Exploiting Massively Parallel News Sources. *Proceedings of the 20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mputational Linguistics*, Article No. 350.

- El-Sayed M. El-Alfy (2014) Statistical Analysis of ML-Based Paraphrase Detectors with Lexical Similarity Metrics. *2014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nformation Science & Applications (ICISA)*: 1-5.
- Gerver, David & Longley, Patricia & Long, John & Lambert, Sylvie (1989) Selection Tests for Trainee Conference Interpreters. *Meta* 34(4): 724-735.
- Gleitman, Lila R. & Gleitman, Henry (1970) *Phrase and Paraphrase - Some Innovative Uses of Language*. New York: W.W.Norton & Company Inc.
- Kalina, Sylvia (1998) *Strategische Prozesse beim Dolmetschen*. Tübingen: Gunter Narr Verlag.
- Levelt, Willem (1989) *Speaking - From Intention to Articulation*. Cambridge: MIT Press.
- Namei, Shidrokh (2004) Bilingual lexical development: A Persian-Swedish word association study. *International Journal of Applied Linguistics* 14(3): 363-388.
- Russo, Mariachiara & Pippa, Salvador (2004) Aptitude to Interpreting: Preliminary Results of a Testing Methodology Based on Paraphrase. *Meta* 49(2), 409-432.
- Russo, Mariachiara (2014) Testing aptitude for interpreting: The predictive value of oral paraphrasing, with synonyms and coherence as assessment parameters. *Interpreting* 16(1), 1-18.
- Shimohata, Mitsuo & Sumita, Eiichiro & Matsumoto, Yuji (2004) Building a Paraphrase Corpus for Speech Translation. *ATR Spoken Language Translation Research Laboratories*, 1407-1410.
- Wolf, Maryanne (2007) *Proust and the Squid: The Story and Science of the Reading Brain*. New York: Harper.
- Zhao, Shiqi & Wang, Haifeng & Liu, Ting & Li, Sheng (2008) Pivot Approach for Extracting Paraphrase Patterns from Bilingual Corpora. *Proceedings of Association for Computational Linguistics*, 780-788.

[온라인 참고문헌]

네이버 국어사전: 패러프레이즈 <http://krdic.naver.com/detail.nhn?docid=40253900>

[Abstract]

**Paraphrasing Competence of Professional Interpreters**

Chung, Hye-yeon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Paraphrasing has been employed in entrance examinations in order to select candidates with the highest potential. This study aims to find out the difference between professional interpreters and non-interpreters in their paraphrasing competence, especially to answer the question, if the substitution of synonyms, one of the important strategies of paraphrasing, is really a crucial feature of an expert interpreter. To accomplish this, a paraphrasing test which consisted of 10 sentences was administered to 3 groups with 56 subjects in total: 12 professionals, 28 first-year students at an interpreting school, and 16 undergraduate school students. The results were analyzed according to nine sub-strategies. The professionals achieved the highest score in the categories listed as 'syntactic restructuring', 'division', and 'concept-based reformulation' in addition to 'speed', 'repetition', and 'change of meaning', but not 'synonym substitution'. These results imply that professionals tend to paraphrase quicker and change the sentence formations more dramatically on the basis of their own concepts than other groups (the group difference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only in the category of 'speed', however). The professionals also improved the sentence coherence and used more conversational verb endings.

▶ Key Words: paraphrase, interpreting competence, strategy, coherence

정혜연

한국의국어대학교 통번역대학원 부교수

johanna2000@hanmail.net

관심분야: 인지심리학, 통번역학

논문투고일: 2016년 4월 11일

심사완료일: 2016년 6월 6일

게재확정일: 2016년 6월 15일